

남한 내 북한이탈주민의 3년간 사회적응 추적 연구

- 2001년부터 2004년까지 생활과 교육을 중심으로

유시은* · 전우택** · 조영아*** · 홍창형**** · 엄진섭*****

I. 서론

북한이탈주민의 국내 입국 규모는 1998년 98명에서 매년 2배 정도씩 증가하여 2003년 12월까지 4,410명에 이르고 있고, 지난 한 해 동안 만도 1,894명이 입국, 정착하였다.¹⁾ 그러나 수적인 증가에도 불구하고 현재 남한에 입국하여 정착을 시도하고 있는 많은 북한이탈주민들은 사회 적응 및 정착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취업, 교육, 문화적응, 정신·신체적 건강, 인간관계의 여러 측면에서 적응은 쉽지 않으며, 많은 시간과 노력, 시행착오가 거듭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의 남한 사회 적응은 단순히 남한 사회의 한 특수

* 연세대학교 통일학협동과정.

**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정신과학교실.

*** 연세대학교 학생상담소.

****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정신과학교실.

***** 충북대학교 심리학과.

1) 통일부, '북한이탈주민 입국현황,' www.unikorea.go.kr.

집단의 적응문제에 국한된 것이 아니다. 이들의 남한 사회 적응은 통일 이후 남북한 주민의 통합과정을 구체적으로 예측해 보고, 그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점을 미리 타진해 볼 수 있는 시금석이 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이러한 이유에서 지금까지 많은 탈북 주민 적응 연구들은 이들 탈북 주민의 적응상의 어려움과 정착 과정을 분석하였고, 연구 결과들을 바탕으로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사회 적응을 지원하는 정부 및 민간단체의 정책 및 지원책에 대한 방향을 제시해왔다.²⁾ 이에 따라 탈북 주민에 대한 정책적 변화도 점진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이러한 노력들은 특히 탈북 주민의 남한 사회 초기 적응에 긍정적인 역할을 해왔다. 이러한 의미에서 그 동안의 탈북 주민에 대한 적응 연구들은 모두 중요한 의미를

- 2) 전우택·윤덕룡·엄진섭, “탈북자들의 남한 사회 적응생활 실태조사: 2001년도 553명의 탈북자들에 대한 조사를 중심으로,” 『통일연구』 7권1호(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2003), 155-208면; 김숙임, “북한이탈 여성주민의 사회적응에 대한 욕구와 민간 단체의 지원 방안에 관한 연구,”(숭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9); 김엘리, “북한이탈 여성주민 생활 실태 조사결과 보고서,” 『북한이탈 여성주민 생활 실태 조사결과 발표와 지원 방안을 위한 토론회 자료집』(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병설 한국여성평화 연구원, 1999); 김영수·정영국, “탈북 귀순자 남한 사회적응실태조사,” 『통일 연구』(서울: 통일연수원, 1996); 독고순, “비교문화적 관점에서의 탈북 주민 적응 연구,”(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1999); 박희정, “북한이탈 여성의 남한 사회 적응에 관한 사례 연구,”(카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8); 오혜정, “귀순 북한 동포의 남한 사회 적응 실태: 사회 문화적 측면에서,”(서강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5); 전우택·민성길·이만홍·이은선, “북한 탈북자들의 남한 사회 적응에 관한 연구,” 『신경정신의학』 36권1호(대한신경정신의학회, 1997), 145-160면; 이금순,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 실태,” 『하나원 개원 5주년 기념 세미나 발표집』(통일부 북한이탈 주민 정착 지원 사무소, 2004); 유시연, “북한이탈주민의 사회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카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1).

지닌다고 할 수 있으나 그 연구 방법상의 몇 가지 한계가 있었다.

첫째, 거의 대부분의 연구가 어느 한 시점에서의 현상만을 측정하여 탈북자들의 시간적 변화에 따른 추이를 측정할 수 없었던 점이다. 횡단면적인 연구가 주로 이루어졌는데, 이루어진 연구들도 정착 3년 이내의 초기단계의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대부분이었다.³⁾ 따라서 북한이탈주민의 장기적인 남한 적응 실태를 이해하기 어려웠고 이들의 남한 적응의 연속적인 변화 과정을 볼 수 없었다. 북한이탈주민 개개인이 장기적으로 어떻게 변화하는 지에 대한 이해를 가질 수 없었으며, 그 결과 탈북 주민에 대한 다양한 정부정책과 민간 지원의 장기적인 효과를 알아볼 수 없었다.

둘째, 북한이탈주민의 적응에 관한 이해가 특정 연구 관심사에 치중되어 이들에 대한 포괄적이고 통합적인 이해를 갖기 어려웠다. 적응이란 생활의 전반적이고 다양한 측면을 모두 포괄할 수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연구의 초점이 너무 구체적이어서 북한이탈주민들의 다양하고 변화하는 상황에 대한 폭 넓고 총체적인 이해를 갖기 어려웠다. 또한, 규모 면에서도 소수의 북한이탈주민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거나 해석하는 데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극복하기 위하여 본 연구자들은 2001년도에 북한이탈주민의 적응 생활 실태에 관한 추적연구를 계획한 바 있다. 즉, 남한에 입국한 후 특정기간동안 하나원에서 교육을 받은 북한이탈주민의 일정 집단을 정하여 이들의 남한 사회 적응을 추적 조사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2001년도에 이에 대한 1차 조사가 이루어졌다.⁴⁾

본 연구는 위 연구의 후속 연구로서 이들 2001년도 적응 연구

3) 김숙임, 앞의 글(1999); 김엘리, 앞의 글(1999); 김영수·정영국, 앞의 글(1996); 박희정, 앞의 글(1998); 오혜정, 앞의 글(1995).

4) 전우택·윤덕룡·엄진섭, 앞의 글(2003).

에 참여했던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추적 연구이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목적을 가지고 이루어졌다.

첫째, 1차 조사에 참여했던 북한이탈주민들의 지난 3년간의 남한 사회 적응 실태의 변화 양상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주거, 교육, 종교, 직장 및 수입, 금전적, 물질적 지원, 법률, 건강, 심리 영역이다.

둘째, 인구, 사회학적 변인에 따른 적응 양상의 차이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셋째, 북한이탈주민의 적응 양상의 변화에 대한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북한이탈주민을 지원하는 정부나 민간단체의 효율적인 지원 정책 및 성공적인 남한 사회 적응 방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제안을 하고자 하였다.

II. 연구 대상 및 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2001년 북한이탈주민들의 남한사회 적응생활 실태조사⁵⁾의 추적연구로 2001년 본 연구에 응한 탈북자 200명 중 추적에 성공한 151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이다. 2001년 당시 연구 대상이 되었던 200명의 북한이탈주민들은 2000년 3월부터 2001년 3월까지 하나원에서 교육을 받은 북한이탈주민 293명 중 연구에 참여하기를 동의한 사람들이었다. 본 연구에 참가한 151명은 남자 85명(56.3%), 여자는 66명(43.7%)이었으며, 연령별로는 20대 32명(21.2%), 30대 67명(44.4%), 40대 28명(18.5%), 50대 이상이 24명(15.9%)이었다. 학력 분포는 '고등학교 졸업 이하'

5) 전우택·윤덕룡·엄진섭, 앞의 글(2003).

94명(62.3%), ‘전문학교 졸업’ 22명(14.6%), ‘대학 졸업 이상’ 35명(23.2%)이었다.

2. 연구 설문

본 연구의 설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되었다. 첫째 부분은 북한이탈주민의 일반적인 생활실태를 조사하기 위한 설문지이다. 설문지를 해석하는 북한이탈주민들의 개인차를 줄이기 위해 면담자가 질문하고 직접 기록하도록 구성하였다. 설문지 내용은 주거, 교육, 종교, 직장 및 수입, 지원, 법률, 건강, 심리, 인적 사항으로 구성되었는데, 직장 및 수입, 심리에 관한 결과는 본 논문에서 생략하였다. 실태조사에 관한 설문은 2001년도 연구에 사용했던 설문을 바탕으로 지난 3년간의 적응 실태를 잘 반영할 수 있도록 내용을 수정·추가하였다. 두번째 부분은 자기보고형 설문지이다. 남한 생활 스트레스 및 우울, 종교성향을 측정하는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면담자가 설문 내용을 간단히 설명한 후 응답자가 자기보고 하도록 구성되었다. 이 자료 역시 본 연구 결과에서 분석하지 않고 별도로 보고하였다.

3. 연구 절차

정부기관 및 신변보호관, 사회복지사의 협조를 받아 2001년도 연구 참여자 200명 중 185명의 연락처를 파악할 수 있었다. 이 명단을 기초로 하여 면담 대상자에게 전화로 연구에 대한 동의를 얻었다. 185명중 151명이 면담에 응하였으며 결번 11명, 거절 7명, 부재중 8명, 중국방문 6명, 해외연수 1명, 구치소 수감 1명은 면담에 불참하였다. 설문조사는 2004년 2월 11일부터 3월 4일까지 이루어졌다. 면담에 대한 사전교육을 이수한 학부생 15명과 대학원생 5명이 본 연구의 조사원으로 활동하였다. 전체적인 조사 진

행은 본 연구의 연구원과 북한이탈주민을 상담하는 사회복지사가 담당하였다. 조사는 지역 단위별로 구분하여 북한이탈주민을 5~30명 단위로 모아 사회복지관에서 면담자가 직접 질문하고 응답을 얻는 방법으로 이루어졌다. 개인사정으로 집단면담에 참여하지 못할 경우 면담자와 직접 면담시간을 약속하고 개인면담을 통해 설문 이 이루어졌다.

4. 결과 분석 방법

각 설문 문항에 따른 분석은 SPSS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또한 문항에 따라 2004년 탈북자들의 남한사회 적응 실태조사에 참여한 151명의 2001년도 실태조사 결과를 함께 분석하여 비교하였다.

Ⅲ. 결과

1. 주거

2004년도 연구 참여자의 88%(133명)가 영구임대주택에서 살고 있다고 응답하였고, 전세 4%(6명), 본인 소유 2.6%(4명), 월세 2%(3명), 기숙사 1.3%(2명), 기타 2%(3명)로 나타났다. 2001년도에 비해 1명이 본인 소유의 집으로 이사하였으며 전세는 1명에서 6명으로 증가하였다(〈표 1〉 참조).

〈표 1〉 주거유형

(단위: 명(%))

구 분	남한 생활 시작주거유형	2001년 주거유형	2004년 주거유형
영구임대/국민주택	143(94.7)	144(95.4)	133(88.0)
전 세	2(1.3)	1(.7)	6(4.0)
본인소유	1(.7)	3(2.0)	4(2.6)
월 세	1(.7)	-	3(2.0)
기 숙 사	2(1.3)	3(2.0)	2(1.3)
기 타	3(2.0)	-	3(2.0)
전체	151(100.0)	151(100.0)	151(100.0)

주거비용은 영구 임대 및 국민 주택의 경우 남한 생활 시작 당 시에는 평균 보증금 578만원에 월세 16만 8천원이 소요되었으나, 2004년도 조사 시에는 평균 보증금 1,243만원에 월세 18만원으로 주거비용이 증가하였다.

주거변동 횟수별로는 입국 이후 한번도 이사를 하지 않은 경우가 67명으로 전체의 44.4%였으며, 1회 이사한 경우가 55명(36.4%), 2회가 24명(15.9%), 3회가 5명(3.3%)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보면 1회 이상 주거지역을 바꾼 경험이 있는 경우가 20대는 50%(16명), 30대 72.7%(42명), 40대는 53.6%(16명), 50대 이상 45.8%(11명)로 30대가 가장 높았다. 지방 거주 경험이 있는 경우도 20대 43.8%, 30대 65.7%, 40대 46.4%, 50대 25%로 30대가 높았다.

2001년도 5월부터 2003년 12월까지 서울에서 서울로 이사한 사람은 18명, 지방에서 서울은 20명, 서울에서 지방은 7명, 지방에서 지방은 13명으로 총 58명이 이사하였다. 주거변동 사유는 직장 관련이 41.4%(24명)로 제일 많았고, 식구가 늘어서 넓은 집이 필요한 경우가 17.2%(11명), 교육문제 17.2%(10명), 깨끗하고 편

안한 주거환경을 위해서가 12.1% (7명)로 나타났다(〈표 2〉 참조).

〈표 2〉 주거변동 방향 및 주거변동 사유

(단위: 명(%))

구 분	직장	넓은 집 필요	교육	주거 환경	주택 구입	결혼	이혼	부인 고향	전체
서울-서울	5(27.8)	6(33.4)	-	3(16.7)	1(5.6)	2(11.1)	1(5.6)	-	18(100.)
서울-지방	4(57.1)	-	2(28.6)	-	-	1(14.3)	-	-	7(100.)
지방-서울	9(45.0)	3(15.0)	5(25.0)	3(15.0)	-	-	-	-	20(100.)
지방-지방	6(46.2)	1(7.7)	3(23.1)	1(7.7)	1(7.7)	-	-	1(7.7)	13(100.)
전체	24(41.4)	11(17.2)	10(17.2)	7(12.1)	2(3.4)	3(5.2)	1(1.7)	1(1.7)	58(100.)

2. 교육

남한 입국 후 2003년 12월까지 직업훈련을 한번이라도 이수한 경험이 있는 사람은 전체의 87.4%인 132명이었다.

남한 입국 후 현재까지 받은 교육 내용 중에는 컴퓨터 교육이 64.4%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2001년 5월부터 2003년 12월까지의 교육 내용을 알아본 2004년 조사 결과에서도 정규학교 47.1% (56명), 컴퓨터학원 43.7% (52명), 운전학원 26.1% (31명), 취업관련학원 26.1% (21명), 요리학원 17.6% (21명), 어학원 10.9% (13명)로 수강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여 컴퓨터 교육의 수강비율이 역시 높았다. 또한, 정규학교를 다니는 탈북자의 수가 2001년도에 비하여 2004년에 25명이나 증가하여 탈북자들도 남한사회의 취업난과 고학력 중시 풍조를 반영하는 결과를 보였다(〈표 3〉 참조).

〈표 3〉 교육 종류(복수응답)

(단위: 명(%))

구 분	남한생활 시작- 2001년 5월 이전	2001년 5월- 2003년 12월	남한생활 시작- 2003년 12월
정규학교	31(28.7)	56(47.1)	64(48.5)
컴퓨터학원	40(37.0)	52(43.7)	85(64.4)
운전학원	21(19.4)	31(26.1)	52(39.4)
취업관련	20(18.5)	31(26.1)	48(36.4)
요리학원	24(22.2)	21(17.6)	35(26.5)
어 학 원	12(11.1)	13(10.9)	25(18.9)
검정고시	10(9.3)	3(2.5)	12(9.1)
신 학	4(3.7)	5(4.2)	7(5.3)
취미관련	2(1.9)	5(4.2)	7(5.3)
전체	108(100.)	119(100.)	132(100.)

2001년도 5월부터 2003년도 12월까지 교육 1회 참여자는 39.7% (60명)이었으며, 2회 17.9% (27명), 3회 5.3% (8명), 4회 2.6% (4명), 5회 이상 2.1% (3명)로 나타났다(〈표 4〉 참조). 남한 생활을 시작한 직후부터 현재까지 한 명당 평균 2.23회(표준편차 1.66)의 교육 경험이 있었으며, 전체의 62.9%인 95명이 2회 이상의 교육을 경험하였다.

〈표 4〉 교육 참여 횟수

(단위: 명(%))

횟수	남한생활 시작- 2001년 5월 이전	2001년 5월- 2003년 12월	남한생활 시작- 2003년 12월
0	43(28.5)	49(32.5)	19(12.6)
1	66(43.7)	60(39.7)	37(24.5)
2	29(19.2)	27(17.9)	44(29.1)
3	12(7.9)	8(5.3)	19(12.6)
4	1(.7)	4(2.6)	16(10.6)
5	-	1(.7)	10(6.6)
6	-	1(.7)	3(2.0)
7	-	1(.7)	1(.7)
전체	151(100.)	151(100.)	151(100.)

정규교육을 이수한 경험이 있는 64명 중 89%(56명)가 30대 이하였으며, 특히 20대는 전체 32명 중 93.8%인 30명이 정규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었다. 또한, 정규 교육 경험은 남자 73.43%(47명), 여자 26.56%(17명)로 남자의 비율이 높았다. 검정고시 역시 12명 중 남자 83.33%(10명), 여자 16.67%(2명)로 남자가 높게 나타났다. 남자들은 컴퓨터, 운전, 취업에 도움이 되는 것, 어학 교육을 선호하였으며, 여자들은 컴퓨터, 요리, 취업 도움 교육을 선호하였다.

직종에 따른 교육 경험 횟수를 보면, 한 명당 정규직은 평균 1.78회, 계약직은 2.63회, 자영업은 2.05회, 무직자는 2.50회로 계약직의 교육 경험 횟수가 가장 높았다. 또한, 계약직은 정규직, 자영업, 무직에 비해 정규학교 및 검정고시 과정을 선택하는 비율이 높았다. 이것은 직장이 안정된 정규직에 비해 계약직, 자영업, 무직 상황에 있는 북한이탈주민들이 구직을 위해 다양한 교육을 경험하는 것이거나 반대로 정규교육을 받고 있기 때문에 계약직에 종사하고 있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표 5〉 참조).

〈표 5〉 연령, 성별, 취업형태 별 교육 내용 분포(복수응답)

(단위: 명(%))

구분	정규학교	검정고시	신학	운전	컴퓨터	요리	어학	취업도움	취미	전체
20대	30(93.8)	10(31.3)	-	10(31.3)	26(81.3)	4(12.5)	14(43.8)	14(43.8)	2(6.3)	32(24.2)
30대	26(44.1)	2(3.4)	1(1.7)	28(47.5)	35(59.3)	16(27.1)	8(13.6)	21(35.6)	5(8.5)	59(44.7)
40대	6(26.1)	-	1(4.3)	13(56.5)	18(78.3)	7(30.4)	3(13.0)	4(17.4)	-	23(17.4)
50대	2(11.1)	-	5(27.8)	1(5.6)	6(33.3)	8(44.4)	-	9(50.0)	-	18(13.6)
남자	47(63.5)	10(13.5)	5(6.8)	34(45.9)	44(59.5)	10(13.5)	17(23.0)	29(39.2)	2(2.7)	74(56.1)
여자	17(29.3)	2(3.4)	2(3.4)	18(31.0)	41(70.7)	25(43.1)	8(13.8)	19(32.8)	5(8.6)	58(43.9)
정규직	18(40.0)	3(6.7)	4(8.9)	17(37.8)	28(62.2)	10(22.2)	4(8.9)	10(22.2)	2(4.4)	45(34.1)
계약직	24(55.8)	5(11.6)	1(2.3)	19(44.2)	28(65.1)	13(30.2)	10(23.3)	22(51.2)	3(7.0)	43(32.6)
자영업	3(17.6)	-	-	10(58.8)	11(64.7)	3(17.6)	4(23.5)	7(41.2)	1(5.9)	17(12.9)
무직	19(70.4)	4(14.8)	2(7.4)	6(22.2)	18(66.7)	9(33.3)	7(25.9)	9(33.3)	1(3.7)	27(20.5)
전체	64(48.5)	12(9.1)	7(5.3)	52(39.4)	85(64.4)	35(26.5)	25(18.9)	48(36.4)	7(5.3)	132(100.)

2001년도 5월부터 2003년도 12월까지 전체 151명 중 66명이 한 개 이상의 자격증을 취득하였다. 제일 많이 취득한 자격증은 보통 운전면허 자격증이었으며(25명), 요리 및 제과 제빵 자격증 10명(남자 2명, 여자 8명), 산업 및 기술 관련 자격증 11명(남자 10명, 여자 1명), 워드프로세서, 컴퓨터 관련 자격증 각 9명, 대형 운전면허 자격증 8명, 중장비 운전면허 5명, 기타 16명이 자격증을 취득하였다. 남자는 산업 및 기술 관련 자격증을, 여자는 요리 및 제과 제빵 자격증을 많이 취득하였다.

3. 종교

2004년 설문 당시 전체 응답자의 61.6%인 93명이 개신교도였고, 1.3%(2명)가 천주교, 0.7%(1명)가 통일교, '종교가 없다'고 응답한 사람이 36.4%인 55명이었다. 응답자의 남한 입국 당시 종교는 개신교 66.2%(100명), 천주교는 0.7%(1명), 종교 없음이 33.1%(50명), 2001년도 당시 종교는 개신교 76.2%(115명), 무교 21.9%(33명), 천주교 1.3%(2명), 불교 0.7%(1명)로 나타나 남한 입국 직후 개신교의 비율은 증가했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입국 당시 보다도 비율이 줄어들고 반대로 종교가 없는 사람의 비율은 입국 직후 감소했다가 점차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6〉 참조).

〈표 6〉 종교유형

(단위: 명(%))

종 교	남한 입국 당시	2001년 5월	2003년 12월
개신교	100(66.2)	115(76.2)	93(61.6)
천주교	1(0.7)	2(1.3)	2(1.3)
불 교	-	1(0.7)	-
통일교	-	-	1(0.7)
무 교	50(33.1)	33(21.9)	55(36.4)
전 체	151(100.0)	151(100.0)	151(100.0)

종교를 가지는 이유로는 '마음의 안정을 얻기 위해서'가 65.5% (78명)로 가장 높았고, '남한사람들을 더 많이 알 수 있어서' 33.6%(40명), '도덕적 삶을 사는 데 도움이 되어서' 23.5%(28명), '입국과정에 도움을 준 사람이 원해서' 19.3%(23명), '남한 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어서' 16.8%(20명) 순으로 나타났다. 종교 유지 이유 역시 '마음의 안정을 얻기 위해서'가 69.4%로 가장 높았고 '남한 사람을 더 많이 알 수 있어서'(35.7%), '남한 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21.4%)가 높게 나타났다. 시작 이유에 비해서 '도덕적 삶을 사는 데 도움이 되어서' 종교를 계속 갖는다는 비율이 23.5%에서 41.8%로 늘어났고, '입국 과정에 도움을 준 사람이 원해서'라는 비율은 19.3%에서 4.1%로 줄어들었다(〈표 7〉 참조).

〈표 7〉 종교 시작 및 유지 이유(복수 응답)

(단위: 명(%))

내 용	종교 시작 이유	종교 유지 이유
마음의 안정을 얻기 위해서	78(65.5)	68(69.4)
도덕적 삶을 사는 데 도움이 되어서	28(23.5)	41(41.8)
남한 사람들을 더 많이 알 수 있어서	40(33.6)	35(35.7)
남한 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어서	20(16.8)	21(21.4)
입국과정에 도움을 준 사람이 원해서	23(19.3)	4(4.1)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어서	19(16.0)	8(8.2)
사상을 바꾸려고	2(1.7)	1(1.0)
믿음을 얻기 위해	-	1(1.0)
신앙심(하나님을 믿음)	2(1.7)	2(2.0)
북한에 전도활동을 위해서	-	1(1.0)
북한 사람을 만날 수 있어서	1(0.8)	2(2.0)
통일에 대한 교리	-	1(1.0)
세상의 진리는 성경에 있기 때문에	1(0.8)	1(1.0)

교리 관련자들이 좋아서	-	1(1.0)
인간 탄생의 목적을 깨달아서	1(0.8)	1(1.0)
시택에서 다녀서	1(0.8)	1(1.0)
중국에서 다님	2(1.7)	-
강요	2(1.7)	-
북에 있는 가족을 위해 기도	2(1.7)	-
기타	8(6.4)	-
전체	119(100.)	93(100.)

종교를 가졌다가 그만 둔 이유로는 ‘목회자나 남한 교인들의 말과 행동이 다른 데 실망해서’(6명)가 제일 많았고, ‘교리를 믿으려 해도 믿어지지 않아서’(3명), ‘예배, 모임에 참석하라고 강요당하는 것이 싫어서’(3명), ‘생활이나 직장일이 바빠서’(5명) 순으로 나타났다(〈표 8〉 참조).

〈표 8〉 종교 중단 이유

(단위: 명(%))

내 용	명(%)
목회자나 남한 교인들의 말과 행동이 다른 데 실망해서	6(25.0)
교회에서 말하는 교리를 믿으려 해도 믿어지지 않아서	3(12.5)
신앙을 갖거나 예배, 모임에 참석하라고 강요당하는 것이 싫어서	3(12.5)
시간이 안 되어(생활이 바빠서)	3(12.5)
직장이 바빠서	2(8.3)
정기모임이 부담되어	1(4.2)
종교생활이 와 닿지 않아서	1(4.2)
거리가 멀어서	1(4.2)
설교가 이해하기 힘들어서	1(4.2)
나가기 싫어서	1(4.2)
개인사정으로	1(4.2)
무응답	1(4.2)
전체	24(100.)

‘현재의 종교생활이 당신의 삶에 도움이 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97명 중 ‘매우 도움’은 42.3%(41명), ‘어느 정도 도움’은 42.3%(41명), ‘보통’은 11.3%(11명), ‘별로 도움 안 됨’은 2.1%(2명), ‘전혀 도움 안 됨’은 2.1%(2명)의 결과를 보였다. 즉, 긍정적인 응답 84.6%, 보통 11.3%, 부정적인 응답 4.2%로 대체로 도움이 되는 쪽으로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지원

민간단체나 교회 등에서 받고 있는 금전적, 기타 지원에 대해 2001년도에는 74.2%(112명)가 ‘1회 이상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한 반면 2004년에는 47.4%(72명)가 ‘있다’고 응답하여 지원 받은 비율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전적 지원을 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2001년도에 39.1%(59명), 2004년도에는 35.8%(54명)로 비슷하였고 기타지원은 2001년도에 55.6%(84명), 2004년도에 15.2%(23명)로 줄어들었다(〈표 9〉 참조).

〈표 9〉 지원받은 횟수

(단위: 명(%))

횟수	남한 생활 시작-2001년 5월 이전	2001년 5월-2003년 12월
0	39(25.8)	79(52.3)
1	74(49.0)	51(33.8)
2	30(19.9)	17(11.3)
3	4(2.6)	3(2.0)
4	2(1.3)	1(0.7)
5	2(1.3)	-
전체	151(100.)	151(100.)

남한 거주기간이 4년 미만인 탈북자들이 57.5%가 1회 이상 지

원 받은 경험이 있었던 반면에 4년 이상인 사람들이 36.6%로 나타나 거주기간이 짧을수록 지원을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1회 이상 지원 받은 비율은 20대가 46.9%(17명), 30대 46.3%(36명), 40대 42.9%(16명), 50대 이상 58.3%(10명)으로 50대 이상이 제일 높았다. 직업현황별로는 정규직 40.7%, 계약직 52.1%, 자영업 26.3%, 무직 66.7%가 1회 이상 지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직업이 없거나 불안정할수록 지원 받은 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 형태별로 보면, 2001년도에는 지원 받은 경험이 있는 112명 중 62.5%(70명)가 정기적 지원을, 80.4%(90명)가 일회성 지원을 받은 것에 비해서 2004년도에는 지원 받은 경험이 있는 72명 중 73.6%(53명)가 정기적 지원을 62.5%(45명)가 일회성 지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정기적 지원 비율은 늘고 일회성 지원의 비율은 줄어든 형태를 보였다.

지원금액은 정기적 지원의 경우 한 회당 평균 지원금액이 2001년도나 2004년도 모두 평균 34만원 정도로 비슷했으나, 일회성 지원의 경우 2001년도에는 한 회당 평균 40만원을, 2004년도에는 평균 61만원을 지원받았던 것으로 나타나 일회성 지원의 지원금액이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었다(〈표 10〉 참조).

〈표 10〉 평균 지원금액

(단위: 만원(표준편차))

구 분	남한생활 시작- 2001년 5월 이전	2001년 5월- 2003년 12월	남한생활 시작- 2003년 12월*
정기적	37.34(16.01)	34.70(13.46)	36.25(14.98)
일회성	39.56(35.13)	61.18(54.46)	52.23(47.93)
전 체	37.79(20.93)	43.70(35.32)	40.50(28.46)

* 남한생활 시작-2003년 12월 지원 금액 중 장학재단 지원금액은 제외한 것임.

기관별 지원 내용을 살펴보면 종교단체에서 금전적 지원을 꾸준히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기타지원(생활 물품 및 인적 지원)이 2001년도는 전체 지원의 57.9%(95회)로 절반이 넘었으나 2004년도에는 33.0%(32회)로 많이 감소하였다(〈표 11〉 참조).

〈표 11〉 기관별 지원 내용(복수응답)

(단위: 회(%))

구 분	2001년 지원내용			2004년 지원내용		
	금전	기타	전체	금전	기타	전체
종교단체	54(46.2)	63(53.8)	117(71.3)	47(78.3)	13(21.7)	60(61.9)
복지관	1(33.3)	2(66.7)	3(1.8)	2(22.2)	7(77.8)	9(9.3)
북한관련단체	5(33.3)	10(66.7)	15(9.1)	1(100.0)	-	1(1.0)
군/구/동사무소	5(50.0)	5(50.0)	10(6.1)	-	8(100.0)	8(8.2)
시민단체	3(20.0)	12(80.0)	15(9.1)	4(66.7)	2(33.3)	6(6.2)
장학회	1(100.0)	-	1(.6)	8(100.0)	-	8(8.2)
기 타	-	3(100.0)	3(1.8)	3(60.0)	2(40.0)	5(5.2)
전 체	69(42.1)	95(57.9)	164(100.0)	65(67.0)	32(33.0)	97(100.0)

지원과 종교의 관련성을 보면 종교가 있는 사람이 무교라고 응답한 사람에 비해 금전적, 기타 지원을 더욱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4년도 연구에서 종교가 있으면서 금전적 지원을 받은 경우는 45.8%인 반면에, 없으면서 금전적 지원을 받은 경우는 18.2%였다(〈표 12〉 참조).

〈표 12〉 지원 내용과 종교의 관련성

(단위: 명(%))

구 분		2001년			2004년		
		받았음	없었음	전체	받았음	없었음	전체
금전적 지 원	종교있음	53(44.5)	66(55.5)	119(100.0)	44(45.8)	52(54.2)	96(100.0)
	종교없음	6(18.8)	26(81.3)	32(100.0)	10(18.2)	45(81.8)	55(100.0)
	전체	59(60.9)	92(39.1)	151(100.0)	54(35.8)	97(64.2)	151(100.0)
기 타 지 원	종교있음	70(58.8)	49(41.2)	119(100.0)	18(18.8)	78(81.3)	96(100.0)
	종교없음	14(43.8)	18(56.3)	32(100.0)	5(9.1)	50(90.9)	55(100.0)
	전체	84(55.6)	67(44.4)	151(100.0)	23(15.2)	128(84.8)	151(100.0)

2001년, 2004년 조사 모두 응답자들은 재정적인 도움과 구직과 관련된 도움을 가장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롭지 않도록 친구가 되어주는 도움’은 2001년도에 30.8%에서 2004년에 13.4%로 감소하였고, ‘몸이 아픈 것에 대한 도움’도 22.6%에서 12.1%로 감소하였다. 한편 2004년에는 전체의 삼분의 일인 33.6%가 ‘가족 친척을 남한으로 데리고 오는 도움’을 희망한다고 응답하였고 법률 상담에 대한 도움도 13.0%에서 21.5%로 증가하였다(〈표 13〉 참조).

〈표 13〉 지원이 필요한 도움(복수 응답)

(단위: 명(%))

내 용	2001년 5월	2003년 12월
돈을 주는 재정적인 도움	64(44.4)	68(45.0)
직장을 구하는 도움	63(41.7)	56(37.1)
외롭지 않도록 친구가 되어주는 도움	45(29.8)	20(13.2)
사고나 급한 일에 대한 도움	39(25.8)	27(17.9)
학교 교육이나 직업 훈련 안내	33(21.9)	40(26.5)
몸이 아픈 것에 대한 도움	33(21.9)	18(11.9)

남한의 정치 경제 사회 이해에 대한 도움	33(21.9)	38(25.2)
집을 구하는 도움	29(19.2)	31(20.5)
법률상담	19(12.6)	32(21.2)
돈을 벌어서 쓰는 것에 대한 경제 상담	15(9.9)	21(13.9)
배우자 선택, 결혼 도움	12(7.9)	14(9.3)
종교적인 고민 공급중에 대한 도움	4(2.6)	5(3.3)
가족친척을 남한으로 데리고 오는 도움*	-	50(33.1)
기타	7(4.6)	10(6.6)
전체	151(100.)	151(100.)

* 2001년 5월 조사에서는 이 항목이 없었음.

5. 법률

법률문제에 직면한 적이 있는 사람은 2001년도에 25명(16.5%)에서 2004년도에 41명(27.2%)으로 증가하였으며, 법적 문제의 건수도 2001년도에 28건에서 2004년도에는 64건으로 증가하였다. 특히 폭력가해가 1건에서 11건으로, 교통법규 위반이 2건에서 12건으로 증가하였다(〈표 14〉 참조).

〈표 14〉 법 내용(복수응답)

(단위: 명(%))

내 용	2001년 5월	2003년 12월
교통사고 피해	8(32.0)	12(29.3)
교통사고 가해	3(12.0)	6(14.6)
교통법규 위반	2(8.0)	12(29.3)
폭력피해	2(8.0)	2(4.9)
폭력가해	1(4.0)	11(26.8)
사기피해	9(36.0)	7(17.1)
기타	1(4.0)	11(26.8)
결혼/이혼/이성문제	2(8.0)	3(7.3)
전체	25(100.)	41(100.)

30대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 법률문제에 가장 많이 직면하였다 (<표 15> 참조). 거주기간이 길수록 법률문제를 많이 겪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4년 미만 거주자 중에는 1명, 4년 이상 거주자 중에는 11명이 폭력 가해와 관련된 법률적 문제에 직면한 경험이 있었다. 남자가 여자보다 법률문제에 많이 부딪혔으며 특히 교통 사고 피해나 교통법규 위반 등의 법률문제를 많이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16> 참조).

<표 15> 연령 별 법률문제(복수응답)

(단위: 명(%))

년도	세대	교통 사고 피해	교통 사고 가해	교통 법규 위반	폭력 피해	폭력 가해	사기 피해	기타	이성 문제	전체
2001년	20대	2(40.0)	-	1(20.0)	1(20.0)	-	-	1(20.0)	-	5(20.0)
	30대	4(30.8)	2(15.4)	-	-	-	7(53.8)	-	2(15.4)	13(52.0)
	40대	2(33.3)	-	1(16.7)	1(16.7)	1(16.7)	1(16.7)	-	-	6(24.0)
	50대	-	1(100.0)	-	-	-	1(100.0)	-	-	1(4.0)
	전체	8(32.0)	3(12.0)	2(8.0)	2(8.0)	1(4.0)	9(36.0)	1(4.0)	2(8.0)	25(100.)
2004년	20대	6(60.0)	-	1(10.0)	2(20.0)	2(20.0)	-	2(20.0)	-	10(24.4)
	30대	5(22.7)	4(18.2)	11(50.0)	-	9(40.9)	3(13.6)	7(31.8)	1(4.5)	22(53.7)
	40대	1(16.7)	-	-	-	-	3(50.0)	2(33.3)	2(33.3)	6(14.6)
	50대	-	2(66.7)	-	-	-	1(33.3)	-	-	3(7.3)
	전체	12(29.3)	6(14.6)	12(29.3)	2(4.9)	11(26.8)	7(17.1)	11(26.8)	3(7.3)	41(100.)

<표 16> 거주기간 및 성별에 따른 법률문제(복수응답)

(단위: 명(%))

구분	교통 사고 피해	교통 사고 가해	교통 법규 위반	폭력 피해	폭력 가해	사기 피해	기타	이성 문제	전체
4년미만	8(38.1)	4(19.0)	4(19.0)	2(9.5)	1(4.8)	5(23.8)	4(19.0)	1(4.8)	21(39.6)
4년이상	12(37.5)	5(15.6)	10(31.3)	2(6.3)	11(34.4)	11(34.4)	8(25.0)	4(12.5)	32(60.4)
남자	14(41.2)	6(17.6)	14(41.2)	3(8.8)	11(32.4)	11(32.4)	7(20.6)	2(5.9)	34(64.2)
여자	6(31.6)	3(15.8)	-	1(5.3)	1(5.3)	5(26.3)	5(26.3)	3(15.8)	19(35.8)
전체	20(37.7)	9(17.0)	14(26.4)	4(7.5)	12(22.6)	16(30.2)	12(22.6)	5(9.4)	53(100.)

법에 대한 수용도는 '전적으로 수용한다'가 36.4%(28건), '대체로 수용한다'가 29.9%(23건), '그저 그렇다'가 10.4%(8건), '수용하기 힘들다'가 9.1%(7명), '전혀 수용하지 못한다'가 14.3%(11건)로 나타났다. 법률문제의 내용별 수용도를 보면 사기 피해의 경우 총 11건 중 '대체로 수용한다' 이상이 27.3%, '그저 그렇다'가 27.3%, '수용하기 힘들다' 이하가 47.5%로 수용이 제일 어려운 법적 문제임을 알 수 있었다(〈표 17〉 참조).

〈표 17〉 법 수용 정도

(단위: 건(%))

법 내용	전적으로 수용한다	대체로 수용한다	그저 그렇다	수용하기 힘들다	전혀 수용하지 못한다	무응답	전체
교통사고 피해	8(40.0)	5(25.0)	1(5.0)	-	2(1.0)	4(20.0)	20(100.)
교통사고 가해	2(22.2)	4(44.4)	(11.1)	-	-	2(22.2)	9(100.)
교통법규 위반	8(57.1)	2(14.3)	2(14.3)	-	-	2(14.3)	14(100.)
폭력 피해	-	2(50.0)	1(25.0)	-	1(25.0)	-	4(100.)
폭력 가해	2(16.7)	5(41.7)	-	1(8.3)	3(25.0)	1(8.3)	12(100.)
사기 피해	1(6.3)	2(12.5)	3(18.8)	3(18.8)	2(12.5)	5(31.3)	16(100.)
기타	6(50.0)	2(16.7)	-	-	3(25.0)	1(8.3)	12(100.)
결혼/이혼/이성문제	1(20.0)	1(20.0)	-	3(60.0)	-	-	5(100.)
전체	28(30.4)	23(25.0)	8(8.7)	7(7.6)	11(12.0)	15(16.3)	92(100.)

6. 건강

탈북자들이 2001년 5월부터 2004년 12월까지 앓았던 질병의 수는 '없다'가 57%(86명), '1회'가 19.2%(29명), '2회'가 9.3%(14명), '3회'가 9.9%(15명), '4회 이상'이 4.9%(7명)였다. 또한 전체의 15.9%인 24명이 입원 경험이 있었다.

현재 건강상태에 대해서는 '매우 좋다'가 17.2%(26명), '좋다'가 29.1%(44명), '보통이다'가 29.8%(45명), '나쁘다'가 18.5%(28명), '매우 나쁘다'가 5.3%(8명)로 응답하여 전체의 23.8%가 건

강이 좋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2년 전과 비교한 건강상태에 대한 질문에서도 ‘매우 좋아졌다’가 4.6% (7명), ‘좋아졌다’가 18.5% (28명), ‘비슷하다’가 45.7% (69명), ‘나빠졌다’가 22.5% (34명), ‘매우 나빠졌다’가 8.6% (13명)로 응답하여 전체의 31.1%가 건강상태가 악화되었다고 응답하였다.

전체의 29.8%가 담배를 피웠는데 흡연자는 모두 남성이었다. 흡연량은 ‘하루 반갑 미만’이 10.6% (16명), ‘하루 반갑-한갑 미만’이 11.9% (18명), ‘하루 한갑 이상’이 7.3% (11명)이었다. 음주량에서는 ‘거의 안 마신다’ 53% (80명), ‘월 2-3회’ 13.2% (20명), ‘주 1-2회’ 18.5% (28명), ‘주 3-4회’ 4.6% (7명)이었으며, ‘거의 매일 마신다’고 응답한 사람도 10.6% (16명)나 되었다. 또한 전체의 31.1%인 47명이 주 3회 이상 운동을 한다고 응답하였다.

근골격계 질환, 소화기계 질환, 정신·행동·신경계 질환을 가장 많이 앓고 있는 것으로 응답하였으며 이중 정신·행동·신경계 질환은 남한에서 발병한 경우가 전체의 64% (16건)로 높게 나타났다(〈표 18〉 참조).

〈표 18〉 질환 종류별 발병지

(단위: 건(%))

내 용	북한	제3국	남한	전 체
근골격계 질환	14(43.8)	1(3.1)	17(53.1)	32(100.)
소화기계 질환	12(40.0)	-	18(60.0)	30(100.)
순환기계 질환	5(50.0)	-	5(50.0)	10(100.)
피부, 비뇨 생식기계 질환	3(23.1)	1(7.7)	9(69.2)	13(100.)
구강 질환	7(63.6)	-	4(36.4)	11(100.)
내분비, 대사, 면역 질환	3(30.0)	1(10.0)	6(60.0)	10(100.)
호흡기계 질환	5(55.6)	1(11.1)	3(33.3)	9(100.)
정신, 행동, 신경계 질환	5(20.0)	4(16.0)	16(64.0)	25(100.)
눈, 귀 질환	1(16.7)	1(16.7)	4(66.7)	6(100.)
암	-	-	1(100.)	1(100.)
전체	55(37.4)	9(6.1)	83(56.5)	147(100.)

탈북자들이 남한의 의료기관을 이용하면서 의료인의 태도, 치료의 질, 의료비용 의료 환경, 행정절차 등에 대체로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의료 환경에 대해서는 전체의 82.7%가 만족한다고 응답하여 만족도가 가장 높았으며, 의료비용은 만족한다는 응답이 53%, 불만족한다는 응답이 21.8%로 만족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19> 참조).

<표 19> 남한의 의료기관 만족도

(단위: 명(%))

만족도	매우 만족한다	비교적 만족한다	보통이다	비교적 불만족한다	매우 불만족한다	무응답	전체
의료인 태도	46(30.5)	49(32.5)	31(20.5)	14(9.3)	6(4.0)	5(3.3)	151(100.)
치료의 질	40(26.5)	47(31.1)	39(25.8)	14(9.3)	6(4.0)	5(3.3)	151(100.)
의료비용	48(31.8)	32(21.2)	33(21.9)	28(18.5)	5(3.3)	5(3.3)	151(100.)
의료 환경	52(34.4)	73(48.3)	21(13.9)	-	-	5(3.3)	151(100.)
행정절차	35(23.2)	65(43.0)	31(20.5)	12(7.9)	3(2.0)	5(3.3)	151(100.)

I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의 결과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사회 적응 실태에서 나타난 주요 사실들의 의미와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주택 지원은 초기 남한 정착에 비교적 효과적이고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단, 향후 장기적으로는 정부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주택지원에 있어 보다 다양한 방법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대부분의 북한이탈주민들이 수도권 정착을 원한다고 알려진 바와 다르게 본 연구 결과에서 북한이탈주민의 지방에서 서울로의 주거지 이주 비율은 높지 않았다. 물론 주거지 이전을 본인의 희망과는 다르게 물

리적 여건이 여의치 않아 하지 못한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본 연구에서 나타난 바에 의하면 이주 사유도 대부분 교육이나 직장 이전과 같은 현실적인 것들이 대부분이어서 특정 지역사회를 기피하는 특성은 보이지 않고 있다. 본 연구와 함께 실시되었으나 다른 논문에 보고 된⁶⁾ 북한이탈주민의 주거 만족도도 3년 전에 비해서 감소하지 않았으며, 본 연구와 거의 같은 시기에 이루어진 다른 북한이탈주민의 적응연구⁷⁾ 결과에서 나타난 정부의 주거 정책에 대한 북한이탈주민 만족도도 높은 편으로 나타나서 주관적인 주거 만족도도 시간적 변화에 따라 감소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아직까지 북한이탈주민의 주거 이동은 보다 제한적이고 본인 소유의 집을 장만하기는 힘든 부분이 있는 것 같다. 비록 영구 임대 주택 거주율이 남한 정착 초기에 94.5%에서 2004년에 88%로 낮아지고, 전세나 자기 소유 집 등으로 좀 더 다양화 되어 가고는 있었지만 영구 임대 주택 혹은 국민 주택의 보증금과 월세 등 주택 유지비용은 증가하여 실제적으로 국민 임대 주택을 벗어나서 자기 소유의 집을 마련할 정도의 경제적 여건을 갖추기는 어려운 실정으로 보인다. 따라서 남한 사회 정착 초기에는 지금과 같은 영구임대주택 지원이 효과적이고 현재와 비슷한 규모의 북한이탈주민이 입국할 때에는 현 주거 정책이 적절한 것으로 생각되지만, 북한이탈주민의 대량 유입과 장기적인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전세 자금 지원이나 자기 집 마련 지원을 위한 주택 지원 방안 등이 일반적인 주택마련 정책과 발맞추어 다양하게 모색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교육에 대한 지원이 좀더 적극적이고 다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 교육 지원과 관련해서 정착 초기에는 학원 수강에 대한 교육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고 일정 기간 동안의 직업 훈련

6) 전우택·유시은·조영아·엄진섭, “남한 내 탈북자들의 3년 추적조사 (II): 의식 및 생활 만족도를 중심으로,” 미발간(2004).

7) 이금순, 앞의 글(2004).

수당이 제공되고 있다. 그러나 일정 기간이 끝나고 나면 그러한 지원을 받을 수 없다. 그런데 본 연구 결과에 의하면 현재 거의 10명 중 9명의 북한이탈주민들이 남한 입국 후 적어도 하나 이상의 정규학교 과정이나 학원수강 등을 통한 교육 및 취업 훈련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자신의 개발을 위하여 학원 등에서 교육을 받는 것은 이들의 남한 사회에서의 직업적 역량강화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이러한 교육 지원은 직접적인 재정적 지원보다도 더 바람직하다. 따라서 향후 탈북자 지원에서 교육에 대한 지원은 다른 어떠한 분야보다도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적절한 교육 내용을 선택하는 것 뿐 아니라 자신이 필요성을 느끼는 적절한 시점교육을 받는 것도 직업훈련이나 교육 효과를 극대화하는 데 중요한 부분이다. 본 연구에서 직업훈련 및 교육 수강은 남한 정착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날 때까지 지속되고 있었는데 이러한 결과는 직업 훈련이나 학원 수강이 정착 초기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개개인의 필요에 따라서 장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교육 지원의 형태 및 시기가 보다 융통성 있고 장기적인 측면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즉, 장기적으로 교육 지원이 초기 정착시기 뿐 아니라 남한 사회 초기 정착 후 재교육의 측면에서도 활용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모색될 필요가 있다.

교육과 관련해서 특징적인 사실 중의 하나는 20, 30대의 정규학교 진학비율이 상당히 높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 참여했던 20대의 거의 대부분이 그리고 30대의 상당수가 남한에서의 정규학교를 경험하였다. 이러한 높은 비율은 학교가 북한이탈주민의 학업적 소양과 취업 능력을 배양하는 주된 남한 사회 정착 교육 기관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남한의 교육과정의 적응, 학업에의 적응은 이들의 적응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따라서 이들 북한이탈주민의 남한 교육과정 적응에 관한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요구된다.

셋째, 북한이탈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지원 내용에 민감한 지원 프로그램이 제공되도록 민간지원단체들의 노력이 필요하다. 본 연구 결과는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지원이 전체적으로 감소하였음을 보여주었다. 1회 지원을 받은 경험이 있었던 사람이 2001년도에는 74.2%였으나 2차 조사에서는 47.4%로 줄어든 것이다. 이것은 새로 남한 사회에 유입되어 들어오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숫자가 많음에 따라 그들에게 민간단체나 교회의 지원이 좀 더 집중됨에 따른 결과라 보여진다. 또한 거주기간이 짧을수록, 직업적 상황이 불안정할수록, 나이가 많을수록 지원이 많은 것으로 보아 지원의 방향이 전반적으로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전체적인 지원 횟수는 줄었지만 정기적 지원의 비율은 늘고 일회성지원 비율은 감소했는데 이것은 지원받는 대상은 줄어들고 있고 지원이 이루어질 때에는 필요한 일부에 정기적으로 집중되고 있으며, 필요하지 않는 일회성 지원은 지양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일회성 지원의 금액은 증가했는데 이것은 일회성 지원이 빈도는 줄었지만 필요시에는 응급상황에 대한 특별한 조치로 보다 큰 규모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해석해볼 수 있다.

지속적으로 가장 큰 규모의 금전적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기관은 종교기관이었다. 북한이탈주민이 가장 원하는 지원이 경제적 지원인 것을 볼 때 이러한 종교기관의 금전적 지원이 북한이탈주민의 요구와 들어맞는 측면은 있겠지만 종교기관이 담당할 수 있는 다양한 역할과 지원 가능성을 생각해보건데 종교기관이 금전적 지원을 주로 담당하는 것은 다소 아쉬운 측면이 있다. 북한이탈주민들이 종교를 유지하는 이유로서 '남한 사회에서 도덕적으로 살아가기 위함'이라는 응답내용의 비율이 2001년에 비해서 증가했다는 사실은 종교가 북한이탈주민의 남한 사회에서 겪는 정신적 혼란을 감소하고 적절한 윤리의식을 가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종교기관을 포함한 북한

이탈주민을 돕는 다양한 민간단체들이 각자의 성격과 역할을 극대화할 수 있는 다양하고 민감한 형태의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그리고 지원을 받기 원하는 내용에 있어서 여전히 재정적 지원과 직장을 구하는 것에 대한 지원을 원하는 것이 1차, 2차 조사에서 모두 높게 나타나 이것이 여전히 중요한 문제임을 알 수 있었다. 다만, 1차 조사에서는 없었던 내용 중 2차 조사에서는 중국이나 북한에 있는 가족들을 남한에 데리고 들어오는 것에 대한 지원 받기를 원하는 것이 3위로 나타나 최근 탈북자들의 관심거리가 어디에 있는 지를 반영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지원은 개인이나 개별 단체의 역량만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는 바, 이러한 상황에 대한 대안적 모색이 정책적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현재 많은 탈북자들이 자신들의 정착지원금을 가족들의 남한 입국을 위하여 쓰고 싶어 하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적절한 안내와 지도가 없으면 사기 등의 피해를 받을 위험도 있으므로, 향후 탈북자 지원 단체나 관련자들의 이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넷째, 법률 지원을 보다 쉽게 받을 수 있는 안내와 교육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를 보면 법률 지원을 바라는 것이 13%에서 21.5%로 증가하였고, 법적인 문제에 연루된 탈북자들의 숫자도 많이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었다. 현재 이들을 위한 민간 법률 지원 시스템이 국내에 만들어진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다. 향후 이것이 잘 환상화되고 북한이탈주민들이 이것을 좀 더 쉽게 사용할 수 있는 홍보와 교육이 필요할 것이다. 동시에 법적인 문제에 연루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적 차원에서의 교육이 하나원 교육과정에서부터 좀 더 강화될 필요성이 있다. 특히 남한 사회에서 폭력이 의미하는 바와 이로 인해 야기되는 문제에 대한 사전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장기적으로 북한이탈주민들만이 겪을 수 있는 미묘하고 복잡한 문제에 대한 법 제도적

차원에서의 고려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이혼과 결혼, 중혼 등과 같은 문제는 많은 법률적인 쟁점을 가지고 있는 미묘한 사항이다. 이러한 문제들은 단순히 그 문제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잡한 갈등상황을 야기하여 폭력과 같은 이차적인 법적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다섯째, 의료 지원과 건강관리가 남한에 들어 온 초기부터 계속하여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2차 조사에 응답한 사람 중 23.8%가 자신의 건강 상태를 매우 나쁘거나 나쁘다고 응답하였고, 보통이라고 응답한 사람도 29.8%로 나타나 이들의 주관적인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음을 보여 주었다. 또한, 2년 전에 비해서 건강상황이 악화되었다고 응답한 북한이탈주민도 30%가 넘었다. 1차 조사 당시 모든 정부 지원 정책 중 의료지원 정책에 대하여 가장 높은 만족도를 보였던 응답자들이 2차 조사에서 가장 감소된 만족도를 보인 것도 의료 지원인 것을 보면 이 문제가 이들에게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⁸⁾ 특히 의료비용과 치료의 질의 측면에서 만족도가 낮았는데 이것은 보험적용이 되지 않는 처치를 받는 경제적 부담과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원하는 치료를 받지 못하는 데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들의 신체·정신적 건강 상태는 향후 이들의 직장 생활, 사회 적응, 삶의 질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중요 요인이 되기 때문에 향후 이들에 대한 의료 지원은 이들이 남한에 입국하여 조사를 받는 가장 초기부터 하나원을 거쳐 남한 생활을 하는 기간 전체에 걸쳐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시급하다.

여섯째,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적응실태 연구가 이들에 대한 지원 등에 직접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와 민간단체 모두가 구체적인 노력을 하여야 한다. 본 연구 과정에서 연구의 취지를 북

8) 전우택·유시은·조영아·엄진섭, 앞의 책(2004); 전우택·윤덕룡·엄진섭, “남한 내 탈북자들의 의식 및 생활 만족도 연구,” 『신경정신의학』, 43권1호(대한신경정신의학회, 2004), 93-104면.

한이탈주민에게 전화로 사전 연락을 취하고 설문을 의뢰하였을 때 자기의 의견이 정책적으로 반영이 되고 향후 북한이탈주민에게 어떤 영향력을 미치는 지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많은 연구 중에 또 하나의 연구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았다. 더욱이 안타까운 것은 사례비 때문에 연구에 임하는 경우도 많았으며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렵다고 호소하는 경우도 많았다. 본 설문을 거절했거나 응답하였던 북한이탈주민 중 다수가 여러 기관의 설문지를 작성 하였지만 그 결과를 알 수 없었으며, 과연 그 연구 결과가 정책에 반영이 되어 자신들에게 어떤 효과를 가져 왔는 지 모르겠다는 부정적인 의사를 밝혔다. 연구에 참여하는 이유 또한 기관별 설문사례비 유무로 참여를 결정하는 경향도 있다고 응답하기도 하였다. 추후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연구를 심층적,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러한 단절감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도 모색이 되어야 하리라 예상된다.

북한이탈주민을 지원하고 연구하는 것은 남북한 통일에 대한 발판을 마련하는 데 큰 의의를 가진다.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사회 적응은 남한사람에게도 이제는 화두로 대두되고 있다. 통일의 분위기가 고조되고 실제로 남북한 교류가 활성화되면서 북한사람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적응 연구는 단지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연구에 국한될 것이 아니라 향후 남한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로까지 확대되어 가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통일부. ‘북한이탈주민 입국현황.’ www.unikorea.go.kr
- 전우택·윤덕룡·엄진섭. “탈북자들의 남한 사회 적응생활 실태조사: 2001년도 553명의 탈북자들에 대한 조사를 중심으로.” 『통일연구』 7권1호.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2003.
- 김숙임. “북한이탈 여성주민의 사회적응에 대한 욕구와 민간 단체의 지원 방안에 관한 연구.” 숭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9.
- 김엘리. “북한이탈 여성주민 생활 실태 조사결과 보고서.” 『북한이탈 여성주민 생활 실태조사결과 발표와 지원 방안을 위한 토론회 자료집』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병설 한국여성평화 연구원, 1999.
- 김영수·정영국. “탈북 귀순자 남한 사회적응실태조사.” 『통일연구』 통일연수원, 1996.
- 독고순. “비교문화적 관점에서의 탈북 주민 적응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1999.
- 박희정. “북한이탈 여성의 남한 사회 적응에 관한 사례 연구.” 카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8.
- 오혜정. “귀순 북한 동포의 남한 사회 적응 실태: 사회 문화적 측면에서.” 서강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5.
- 전우택·민성길·이만홍·이은설. “북한 탈북자들의 남한 사회 적응에 관한 연구.” 『신경정신의학』 36권1호. 대한신경정신의학회, 1997.
- 이금순.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 실태.” 『하나원 개원 5주년 기념 세미나 발표집』 통일부 북한이탈 주민 정착 지원 사무소, 2004.
- 유시연. “북한이탈주민의 사회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카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 전우택·유시은·조영아·엄진섭. “남한 내 탈북자들의 3년 추적 조사(II): 의식 및 생활 만족도를 중심으로.” 미발간. 2004.
- 전우택·윤덕룡·엄진섭. “남한 내 탈북자들의 의식 및 생활 만족도 연구.” 『신경정신의학』 43권1호. 대한신경정신의학회, 2004.

Abstract

**The 3 year Follow up Study of Society
Adaptation of North Korean defectors
- With prioty given to life of North Korea defectors
from 2001 to 2004**

YU, Shi-Eun* · JEON, Woo-Taek** ·
CHO, Young-A*** · HONG, Chang-Hyung**** · UM, Jin-Sup*****

Purpose of this study : In 2001, this study that investigate actual conditions about adaptation degree of Korean social life of the North Korean defectors was carried out to 151 people that succeed in chases among 200 the North Korea defectors answer in study. Purpose of this study is as following. First, we wished to search change aspect of actual conditions about South Korea society adaptation of the North Korean defectors who take part in the first investigation for past 3 years. Second, we wished to

* Interdisciplinary Graduate Program in Korean Unification Studies, Yonsei University.

** Department of Psychiatry, College of Medicine, Yonsei University.

*** Yonsei Counselling Center, Yonsei University.

**** Department of Psychiatry, College of Medicine, Yonsei University.

***** Department of Psychology, Chungbuk University.

search difference of adaptation aspect by populational and social element. Third, We wished to suggest things that can be beac-
oned to efficient support policy of government or private organi-
zation and successful South Korea social adaptation method
which support the North Korean defectors on the basis of study
finding about change of adaptation aspect of the North Korea
defectors.

Methods of Study : We designated 200 Panels to study and
survey actual adaptation conditions of the North Korean defectors
on South Korea society synthetically and for long-term. So,
chasing about 151 people was possible in 2004. We are
fertilized and supplement the questionnaire forming in 2001 and
composed the new questionnaires to part of a life, mental state,
Body and health. This study among them investigated a stand-
ard of living of the North Korean defectors. In this process,
interviewer directly asked and recorded questions to reduce
individual variation of people who receive interview.

Study Results : Government's residence support policy about
North Korean secession inhabitants was generally attained as
effective and suitable for North Korean inhabitants' early South
Korea settlement. Only, government need to discuss about North
Korea secession inhabitants' residence support more variously for
long-term. Second, education should be supported more actively
and variously. Suitable point of education for their needs should
make a effect of vocational training or education maximize. This
is a very important part. Third, they need guidance and educa-
tion that can receive more easily law support. Fourth, medical

supports and health cares should be achieved continuously and systematically to them since they arrived in South Korea.

To supports and studies North Korean secession inhabitants has the large significance to gain a foothold about reunification of North and south. Their South Korea society adaptation is becoming topic of conversation among South Korean. An atmosphere of unity is elated. And interest degrees about North Korean are actually rising as exchanges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n is activated. Therefore, the adaptation study about North Korean secession inhabitants will have to be expanded in studies for South Korean, not to be limited in studies for North Korean.